

산수가 아름다운 어촌 ... 바다·갯벌엔 해산물 풍부

주민 117명·어촌계원 21명
어가 연 소득 최대 2억원
운림산방·신비의 바닷길
세방낙조·서망항 등
모두 승용차로 30분 거리에

진도대교와 진도읍을 지나 남쪽으로 30여분을 차로 달리면 나타나는 진도군 임회면 남선마을. 무더위가 가시고 오후에도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8일 오후 마을을 찾았다. 승용차에서 내리자마자 동령개 시비가 서있고 그 오른쪽에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랑하는 굵은 팽나무가 10여그루 서있다. 나무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앞으로 보니 U자형 해안의 왼편에는 동령개 포구가, 오른쪽은 아트막한 산이 자리를 잡고 있다. 발 아래로는 조약돌 해변이 멀리로는 수평선이 펼쳐져 있다. 나무 주변에서는 향긋한 꽃내음이 온 몸을 감쌀 정도로 물씬 풍겨나온다. 전망도 향기도 말 그대로 일품이었다.

이처럼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품었지만 마을사람들은 눈과 발 그리고 갯벌과 바다를 터전삼아 삶을 이어간다. 관광객들이 밤이면 찾아들 숙소도 변변한 식당도 마땅치 않다. 지금은 외지인들이 그제 이 곳 바다에서 잠시 낚시를 하거나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갈 뿐이지만 수려한 경관을 무기 삼아 관광산업을 일으킨다면 그 전망은 결코 어두워보이지 않는다.

마을 어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1800년경부터. 밀양 박씨 사람들이 처음 마을로 들어왔고 50여년이 지나 김해 김씨 사람들이 옮겨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됐다고 한다. 임회면의 남쪽, 산수가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남선마을이라고 한다. 마을 포구는 동령개로 불리며 인근 주요 포구로는 서망항, 팽목항이 있다.

마을에는 117명의 주민이 산다. 여느 어촌 마을처럼 젊은이보다 연세 지긋한 노인들이 절대 다수다. 19세 미만 청소년이 14명, 20-65세 미만 청장년이 40명, 65세 이상 어르신 63명이다. 이 가운데 어촌계원은 모두 21명이다. 어촌계원을 제외한 주민들은 대개 벼농사를 짓거나 밭에 대파, 고추, 콩 등을 심고 거둬들여 생계를 꾸려간다.

어촌계 규모는 작지만 마을 앞 갯벌과 바다는 나오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알차다. 어촌계 대표 상품으로는 멸치, 홍새우, 다시마, 미역이다. 생물거리는 거의 하지 않고 말려서 위판장이나 도매상인들을 통해 유통한다. 멸치는 5-11월까지 나고, 홍새우는 7-8월을 제외한 사시사철 생산된다. 다시마와 미역은 양식장뿐 아니라 자연산도 채취한다. 어촌계원들은 전북치폐도 양식해서 완도 등 전국 양식장으로 출하한다. 이 마을 어촌계장 김철오(61)씨 설명에 따르면 자연산 톳, 전복, 해삼, 굴 등 해산물이라는 해산물은 전부 나온다고 보면 된다. 어가별 연간 소득은 2000만원 안팎부터 최대 2억원까지 격차가 크다.

남선마을 주변에는 이름난 관광지, 명소가 적지 않다.

운림산방, 세방낙조, 신비의 바닷길, 꽃계 산지로 유명한 서망항 위판장이 있는데 모두 승용차로 30분 안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 운림산방은 조선 시대 말 남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 말년에 기거하던 화실이다. 운림산방이란 이름은 절철산 주위



하늘에서 내려다 본 진도군 임회면 남선마을 방파제.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에 수많은 봉우리가 어우러진 깊은 산골에 아침 저녁으로 피어오르는 안개가 구름 숲을 이룬 모습을 보고 이름지었다 한다.

세방낙조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는 다도해의 경관은 압권이다. 해질 무렵 섬과 섬 사이로 빨려 들어가는 일몰의 장관은 주위의 파란 하늘을 단풍보다 더 붉은 빛으로 물들인다. 세방낙조 주변 해안도로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다도해 드라이브 코스로 꼽힌다.

전국 꽃게 생산량의 25%를 담당하는 서망항 위판장도 마을에서 승용차로 10여분 거리다. 매년 10월이면 서망항 위판장에서 꽃게 축제가 열린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어촌계장 김철오씨 부부가 고기잡이배에서 잡은 바닷고기와 새우 등을 내리고 있다. 김씨 부부는 홍새우를 직접 건조해서 판다.



진도군 임회면 남선마을 팽나무 동산은 진도에서도 전망이 좋다고 손꼽히는 곳이다. 벤치에 앉으면 왼쪽으로는 방파제와 포구가 오른쪽으로는 산이 있고 정면으로는 바다가 펼쳐져있다. 차를 몰고 팽나무 동산 코앞까지 갈 수 있는데 불과 초가을이라면 차량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아생화 냄새가 끝내준다.

“우리마을 귀어 3년이면 도시생활보다 훨씬 나을거요”

김철오 어촌계장

“이대로 20년, 아니 10년만 흘러도 우리 마을은 물론 전국의 어촌에서 사람 구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어 하려고 문을 두드리는 젊은이들이 한 둘이 아닌데 모든 걸 귀어인들에게 감당하라고 하시는 안 됩니다.”

진도군 임회면 굴포리 남선마을 어촌계장 김철오(61)씨는 귀어 희망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씨는 “우리 어촌계의 경우 3년간 거주하면 누구나 계원으로 받아들인다. 큰 작든 배를 구입하고 어업면허를 갖춘 뒤 몇달만 어민들과 함께 일하며 어깨너머로 배일을 배운다면 도시생활보다 더 나은 생활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왜 그렇게 귀어에 대해 강조하느냐’는 물음에는 “젊은 이들이 돌아오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일단 마을이 활기를 띠고 생각이 감돌 것 아니냐. 그리고 누군가는 바다와 갯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김씨도 사실은 귀어인이다. 누구보다 귀



어 초반의 어려움과 고단함을 잘 알고 있지만, 몇 년 살아보니 겁내거나 못할 일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남선마을에서 나고 자라 성인이 된 이후 인천에서 건축업 등을 하며 청장년기를 보내고 지난

2008년 가을 고향마을로 내려왔다. 몸과 마음이 지친데다 고향에 계신 노부모를 더 늦기 전에 찾아가 보살펴야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이 함께 작용했다.

귀어 첫 해 그는 조그만 낚시배를 사들였다.

낚시꾼들을 갯바위에 내려주거나 선상 낚시를 시켜주며 소득을 올렸다. 아내와 함께 낚시용 고기를 잡아 위판장에 팔기도 하며 귀어 첫해에만 2000만원 가량 소득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다 이웃의 새우잡이, 멸치잡이, 미역·다시마 양식업을 도우며 어깨 너머로 일을 손에 익히면서 범위를 점차 넓혀갔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홍새우와 멸치 등 각종 물고기, 미역·다시마 양식 등을 하며 연간 1억원 이상의 고정 소득을 올리고 있다. 지난 9월 8일 오후 마을 앞 방파제에서 만날 당시 어촌계장 김씨는 아내와 함께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홍새우 4상자(10kg), 간재미 10여마리, 점상어, 복어 등 잡어 수십마리가 4t짜리 고깃배에 실려 팔딱거렸다. 그는 “태고도 20여년간 바다로 나가 오후 3시가

지 그물로 잡은 게 이 정도”라며 “뺨이 좋아 그런지 고기만 고기, 미역·다시마 양식이면 양식, 몸을 움직이기만 하면 마을 앞바다는 언제고 넉넉하게 되돌려 준다”고 자랑했다.

그가 계장으로 있는 어촌계원은 모두 21명.

가장 젊은 축이 50대, 어촌계원 대부분은 60-80대로 연로했다. 고깃배 없이 맨손 어업만 하는 경우는 없고 저마다 배를 가지고 바다를 터전 삼아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그런 어촌계에는 오래전부터 꿈꿔오던 소망이 있다.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방파제 대신 수심이 좀 더 깊은 바다로 좀더 깊게 쪽 뺨은 새로운 방파제를 갖는 것이다. 어촌계장 김씨는 “어촌에 투자하는 것은 가깝게 보면 현재의 어민들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지만 좀 더 크게 멀리보면 귀어인 유인책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고령화되는 어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찾아오시는 길

- ▶ 승용차
 - 한남IC → 경부고속도로 → 논산천안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 → 서영암IC → 호동교차로(화원 방면) → 녹진교차로(진도타워 방면) → 진도군 → 임회면 → 남선마을
- ▶ 고속버스
 -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 → 진도공용터미널(4시간40분) → 진도공용터미널정류장 도보이동(1분) → 팽목, 서망항 버스 승차(1시간6분 이동) →

- 남선리정류장 하차 → 남선마을
- ▶ 열차
 - KTX용산역 → 목포역(2시간15분) → 목포역정류장 200, 1A, 1-2버스 승차(13분 이동) → 버스터미널정류장 하차 → 목포종합버스터미널 도보이동(6분) → 진도공용터미널(1시간10분) → 진도공용터미널정류장 도보이동(1분) → 팽목, 서망항 버스 승차(1시간6분 이동) → 남선리정류장 하차 → 남선마을